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 서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88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7월 26일(음력 7월 2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 사람이라면 모두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이렇게 더운데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백분지일이라도 갚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이 자립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 보시고 했지만 자식을 길러 보시면 부모의 그 은혜를 천분지일, 백분지일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본다면 '너무도 크나큰 은공을 이렇게 해서 다 갚을 수 있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생도 하는가 하면 벌의별 짓 다 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해서 병이 나면 개구리를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닭을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뱀을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양을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개를 잡아서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부모는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생을 해서 무엇이 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건강하게 길러야만 하겠기에 벌의별 짓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길러줬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딸자식은 또 출가하면 그 시집을 섬기되 그 시부모도 역시 그 친정 부모와 똑같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백중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철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철석은 마음을 가다듬어서, 밝게 마음을 해서, 백중에 그 모든 영령들의 조상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도 됩



그림 · 최주현

기 이전에 짧습니다. 짧은 이 기간에 우리는 모든 점에 의해서 알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의 부모들이, 또 현재의 자식들이 나중에 또 부모가 되고 늙어서 죽게 되고 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인생으로 태어났다 하면 태어났다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죽어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죽었다는 신고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위로 상층계로 갈 사람은 가고 또는 중진계로 즉, 우리 중진계, 이 세계에 그냥 태어나게 되려면 태어나고 또 아주 그냥 그 짐승으로나 하의 동물로 태어나려고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는 무죄대로 풀려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도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 법정에 서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일단 생사천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경찰서라고 하겠습니다.

생사천이란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무죄든 유죄든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생사천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아주 죽어 있는 처소도 아닌 그런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죽거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생사천을 거쳐서 우리가, 즉 말하자면 부처님 법에서 무명천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 공부 하시는 거는 무명천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관습에 의해서 모든 살

아나기는 이 잎새 가지 나무, 이것이 전부 다 뿌리에 의해서 얽히고설키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그렇다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뿌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록으로 만날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꼬달리면 그 생사천이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생사천을, 아니 무명천을 해 매다가 그냥 허공에 훈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무명천이란, 항상 얘기해 드리지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먼지 없을 곳이 어딘가. 그러나 무명천이 있다고 말을 걸어 놓으니까 무명천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죽어서도 무명천을 찾느라고 열 쓰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무명천은 없다고, 공해서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무명천은 얼른 쉽게 말해서 모두가 저쪽으로 넘어가느냐 이쪽으로 넘어오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무명천이라는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천이 '하, 무명천이 어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관하는 도리에 의해서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고 자기 짝이 진짜로 한다면 무명천이 그 가운데 있을 리가 없죠. 무명천이 가로막을 이유가 없어요. 뿌리와 짝이 한데 붙어 있는 그 사이에 무명천이 어디 붙어 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면 흙에 가려 있듯이 흙에 가려 있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흙에 가려 있는 것이 무명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 바로 업식에 덮여서 그 자기의 짝과 뿌리가 한데 맞붙고 그 사이에 누구도 거기에 거론 못하리만큼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알게 되면 그냥 그대로 맞붙은 겁니다. 뿌리와 짝이 맞붙었지 그 사이에 뭐가 낀 게 없습니다. 그렇듯이 무명은 없는 것이 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명천도 이름이요 방편이지 그것은 없는 것이고, 생사천도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그 도리를 풀로 보지 않는다면 생사천도 없을 것이요, 이름인 것이요. 또는 법천을 거쳐서 불사천을 거치는데 우리가 그 모든 마음들에 의해서 모두 법천을 넘어서고 불사천을 넘어서고 도리천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란 마음 자체가 이렇게 탈피를 하려면 우리가 관하는 그 도리가 얼마만큼 뭐, 치열해야 한다고 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믿는 것,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짝이 자기 뿌리로 인해서 다 살고 있으면서 '똥방 싸는 뿌리에 의해서 있으니 뿌리, 너만이 짝을 이끌어 갈 수 있잖아.'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통에는 배와 같습니다. 허허바다에 띄워 놓은 배 말입니다. 우리는 살얼음판 같은 허허바다에다가 배 한 척을 띄워 놓은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치고 때로는 역수장마가 들어서 물결이 심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배가 밀려가려고 뒤집힐 듯 뒤집힐 듯 한 그 사이를 우리는 지금 밟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허허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 한 척 속에 많은 중생들이 꼭 차 있습니다. 그 배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몸통이 지금 허허바다에 배 한 척 떠 있는 것과 같고 배 한 척 속에 많은 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다면 잔뜩 들어 있는 중생들을 이끌어 가면서 제도하려면, 마음의 선장이 그게 노를 젓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들은 어떠한 업식에 의해서 생각들이 나느냐 하면 파도가 치거나 하면 안으로다가 침착하게 두고, 몸을 가만히 두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한마음의 선장이여! 당신만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놔야 될 텐데 바깥으로 손짓 발짓 하면서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가 안 뒤집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리고 마음의 선장이란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기를 어떠한 모습으로나 형성시킨 장본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대로 차원의 그릇에 따라서 행성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이죠. 그런 장본인이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그 뱃사공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떠 놔주나 하면 그게 떠 놔주나 아니나 바로 자기 가운데 이 집 가운데 바로 선장이 서 있는 거와 같고 이 집 가운데 바로 심봉이 서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

### 칠석에

마음을 밝게 해서

백중에

모든 조상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

”

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듯이, 땅이 없으면 인간이 없듯이, 우리가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지렁이나 곤충에 이르러 기까지도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다리가 찢기고 모가지가 떨어지고 이래도 달려드는 그런 걸 봤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일도 잘 풀리고 또 모든 곡식들에게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수화풍을 진짜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만, 또 만물만생이 다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은혜가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비가 좀 안 왔다고 해서 사람이 농사를 못 짓게 되고 죽게 되고 이 야단들을 하는 걸 보십시오. 물이 없어도 아니 되고 불이 없어도 아니 되고 공기가 없어도 아니 되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이것이 모든 감사한 뜻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누구를 예뻐하고 크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발 떼어 놓으면 어저께요. 한 발 떼어 놓으면 내일이요, 한 발 떼어 놓으면 오늘도 공해서 그냥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우리가 캄캄 나와서 더불어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부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는 장소에서 떠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가 이런 인생을 길다고 하



그림 · 최주현

“

### 부모의 은혜 생각하며

지극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올린다면

꽃송이처럼 향기가 퍼져

온 천지에 이른다

”

를 자기가 형성시켜 가지고 그 모든 인연에 따른 업식들을 다 거기 한꺼번에 담아 가지고 그 가운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지고 본다면 이 형체 속에 있는 나, 참나, 지금 형체를 가지고 그 형체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있고 나쁜 것 좋은 것을 알게 돼 있고 모든 것이 그 선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생각들 해 보세요, 누구를 믿나. 자기를 믿고 다니는 장본인, 자기! 모두 한마음으로 모아져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 자기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모두 이렇게 한데 모여서 뿌리가 된 그 뿌리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느냐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자기를 낳아 준 부모의 은혜고 지수화풍의 은혜고 모든 만물의 은혜고, 허공의 은혜고... 뭐 만물이라면 헤아릴 수가 없겠죠. 나라의 국왕의 은혜도, 중생들이 만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살아서 앉아 계신 것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기에 이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또 옷을 짜는 회사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죠. 모두 이거는 어떠한 걸 연구해서 음식을 가공해서 모두 먹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